



윤여수의 라스트씬 | 영화 '편지' & '폴 몬티'

# IMF 그때 그 시절, 우리와 함께 울어줬던 감동들

나라가 파탄난 날 다음날 개봉한 '편지' 컴컴한 극장... 울고 싶는데 뺨 때려줘 발가벗은 실업자들 '폴 몬티'에 눈물도

20년 전 한여름의 늦은 밤. 무리들은 서울 정동공원의 너른 정자를 더 삼았다. 거의 매일 긴장감과 비장함의 언사들이 씩 없이 오가는 긴 회의를 마치고 이른 저녁식사를 빙자해 폭탄주를 몇 순배씩 돌리던 나날이었다. 참치 김치찌개와 열무비빔밥, 구운 노가리의 맛이 일품이던 식당 겸 술집이 문을 닫을 때쯤이면 자리를 마감한 뒤 맥주와 소주, 약간의 안주거리를 사들고 서로 킁킁거리며 정자로 향했다.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셔댔다.

누군가는 술과 피곤함에 절여 아예 정자 마루바닥에 몸을 누였다. 무리들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가 부르기 시작해 고래고래 함성 같은 합창으로 이어지는 노래 소리에 이내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어느 날엔가는 술을 마시다 또 누군가의 충동적, 돌발적 제안에 택시를 잡아탔다. 강원도 속초로 내달렸다. "바다 보러 가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아관파천의 아픔을 간직한 옛 러시아 공사관의 르네상스식 건물이 매일 밤 이들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 주변을 순찰하던 전경들의 얼굴도 조금씩 낯익어갔다.

### ● 호기로운 실업(失業)

회사가 내쫓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미 3~4개월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상의 실업자들이었다.

이들이 다니던 회사는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하고 회사란 볼품 없었던 계절에 부모를 냈다. 꽤 영향력 있던 잡지사는 시사주간지 하나만을 남겨두고 다른 잡지를 모두 무기한 휴간한다고 발표했다. 회사가 부모에 앞서 시사주간지의 발행권한을 일찌감치 계열사로 넘겼다는 것을 이들은 뒤늦게 알았다.

무리들은 회사의 '위장부도'를 의심했다. 회사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싸움을 위한 회의는 매일 이어졌다. 회사의 허점을 겨냥



영화 '편지'(왼쪽 사진)와 '폴 몬티'는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로 힘들어하던 이들의 마음을 서로 다른 색깔로 달랐다. '편지'는 슬픈 이야기로 관객의 눈물을 자극했고, '폴 몬티'는 '웃픈'(웃기지만 슬픈) 감성으로 다가갔다.



스포츠동아DB

한 전략과 전술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는 사이 회사는 얼마간 밀렸던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조금씩 내주었다. 매일 밤 술값은 거기서 실시일만 하거나 먼저 재취업한 이들이 내놓은 것으로 충당했다.

술자리에선 늘 웃음이 넘쳐났다. 무리들은 호기롭게 모여 술잔을 나누고 또 호기롭게 내일의 싸움을 준비했다. 농담에 킁킁거리고, 유머에 박장대소했다.

최고 20여년부터 내려 이어지는 다양한 연차의 선배들 사이에서 이제 갓 3년차였던 막내는 때로 후배의 예도 무시한 채 아슬아슬한 농담을 내던지곤 했다. 선배들은 그마저도 호쾌한 웃음으로 받아쳤다. 심지어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사옥 정문에 내려진 셔터의 창살을 부여잡고 회사를 향해 갖은 욕설을 해대는 후배를 팔짱 낀 채 바라보면서 킁킁거렸다.

### ● 기어이 흐른 눈물

마셔도, 마셔도 쉽게 취하지 않았다. 취할 수 없었다. 숙취를 안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퍼붓는 술은 세월을 정신 말짱한 채로 견디게 해주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더 중요한 건 무리들 중 그 누구도 단 한 번 울지 않았다는 거다.

"The end!(디 엔드) 끝났어! 다 끝났어!"

부도가 나던 날,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편집디자인으로 일한 선배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던진 한 마디에도 킁킁거렸던 무리들이었다.

하지만 눈물은 영풍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영국 남부 요크셔 산업타운의 제철소가 문을 닫으면서 거리로 내몰린 가스주와 그 친구들은 기어이 웃을 벗어 던졌다. 직장파 일을 잃고 하릴 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실업급여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은 직업알선센터를 드나들지만 새로운 일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단지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 경찰 단속의 위험 앞에서 인생 단 한 번의 스트립쇼를 벌이기로 했다.

가스와 친구들은 자신들을 내버린 세상의 불합리한 구조를 비웃듯 웃을 벗어 던졌다. 이들이 내던진 웃가지의 거추장스러움이 통쾌했다. 그러면서도 눈물이 흐르고 말았다. 컴컴한 극장 안에서 옆 사람이 눈치챌까 훌쩍일 수 없었지만, 눈물은 주체할 수 없었다.

어쩌면 눈물은 이미 그 전 해 늦가을부터 예비 된 것이었는지 모른다. 세상 더 없이

순정한 사랑을 나눈 두 남녀의 이야기부터였다. 먼저 떠난 남자가 보낸 뒤늦은 편지를 받아들여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며 여자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다. 생전 녹화를 해둔 영상 속에서 남자 역시 눈물을 거두지 못했다.

다만 그때의 눈물은 이미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는 여자를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게 해주었다. 공유하는 눈물만이 이들을 지탱해주었다. 그리고 눈물은 여자를 조금씩 일으켜 세워주었다.

### ● 웃음은 왜 짝가!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나라 경제가 파탄 났음이 알려진 다음날 세상에 나왔다. 월급이 기한 없이 밀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값을 길 없이 버티기에 올라야 했던 많은 이들은 이들의 이야기에 울고 또 울었다.

어떤 이들은 '신과'라고 비웃기도 했지만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이들의 귀에 그건 그저 현학적 수사일 뿐이었다. 설령 신파라든가 어떤가. 울고 싶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데, 마침 컴컴한 극장 안이었으니 그 얼마나 다행인가. 남자가 보낸 편지로서 살아갈 이유가 다시 찾아가는 여

자처럼, 사람들은 그러고서 힘겹지만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줄 알았다.

어느 시인은 설렁탕 한 그릇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이를 바라보는 자식으로 죄스러움과 설움을 떠올리며 '눈물은 왜 짝가'(함민복)라고 자문했다. 시인은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대며 맘을 흘렸다. 그리고는 이를 뒤섞어 애써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눈물은 그렇게 설움 속에서도 흐른다. 하지만 한 방울의 눈물보다 다시 한 번 어깨 크게 펴고 호탕하게 웃는 웃음이 더욱 절실할 때도 있다. 직장을 잃고 삭풍처럼 몰아칠 앞날에 대한 불안감 대신 차라리 크게 웃는 것으로 아픔을 이겨내며 세상과 맞서려 했던 선배들의 모습도 때 한 가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눈물은 쉽게 흘러서는 안 되는 것이라. 자신을 찾아가길 것을 다짐하며 흘러내는 눈물야말로 세상 가장 뜨거운 액체일 수 있겠지만,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려는 이들에게 웃음은 눈물보다 더 짝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tadada@donga.com

### 영화 '편지'·'폴 몬티'

두 영화는 1997년 11월21일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이후 개봉했다. '편지'는 그 다음날, '폴 몬티'는 이듬해 4월 선보였다. 최진실·박신양이 주연하고 이정국 감독이 연출한 '편지'는 두 남녀의 순애보와 불치병의 아픔 등 설정과 진하게 관객의 감성을 건드리는 이야기로 경제 위기에 시달리던 이들의 눈물샘을 크게 자극했다. '폴 몬티'는 가스 등 영국 제철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은 뒤 스트립쇼에 나서기까지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 구제금융의 대가였던 구조조정의 이름 아래 수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어 가는 현실에서 관객의 공감을 얻었다. 가스 역의 로버트 칼라일이 주연하고 피터 카타네오 감독이 연출한 1997년 작품이다.

## 연예 뉴스스테이션



김장훈, 16일 강남서 김장봉사활동

가수 김장훈(사진)이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와 함께 김장행사를 진행한다. 13일 소속사 FX솔루션에 따르면 김장훈은 16일 서울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및 강남구청과 함께 '김장훈이 김장한데이(day)' 행사를 열고 2000포기 김장을 해 기부한다. 또 독거 어르신 100명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한다. 트로트 가수 홍시와 영탁은 재능기부 형태로 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응원 콘서트도 연다. 10년 넘게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장훈은 "나눔은 그 어떠한 틀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며 "늘 서울역이나 부평역에서 행사를 해왔는데 강남에서도 나눔 행사가 자주 열리고 나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병헌·김태리 올해의 텔런트 1·2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연 이병헌(오른쪽)과 김태리가 올 한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텔런트 1·2위에 뽑혔다. 한국갤럽이 11월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제주 제외)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병헌과 김태리가 각각 12.9%와 9.0%의 지지를 얻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드라마 '발산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호흡을 맞춘 정해인과 손예진도 각각 8.7%와 5.3%로 3위와 5위에 올랐다. 4위는 현재 방송 중인 '남자친구'의 박보검(6.1%)이었다. 박보검은 이번 조사가 끝날 무렵인 11월28일 주연 드라마가 첫 방송돼 사실상 올해 신작 없이도 상위권에 들어 더욱 시선을 끈다.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서 중년의 사랑을 보여준 정미희와 유동근은 각각 6위와 9위를 기록했다.



이순재 등 대한민국 베스트 스타상

배우 이순재(사진), 김윤석, 장동건, 수애가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스타상' 주연상을 받았다. 최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영화배우협회는 주연상 외에도 공로상, 조연상, 인기스타상, 신인상 등을 시상했다. 공로상 수상자로는 지난날 4일 세상을 떠난 고(故) 신성일 한국영화배우협회 명예이사장이 선정됐다. 감독상은 '공작'의 윤종빈 감독, 독립영화감독상은 '소공녀'의 전고은 감독에게 각각 돌아갔다. '신과함께-인과 연'의 김동욱, '독전'의 진서연은 베스트 조연상을 받았다. 베스트 신인상은 '폭력의 씨앗'의 이가섭, '죄 많은 소녀'의 전여빈이 품에 안았고, 베스트 독립영화 스타상은 '박화영'의 김기희가 수상했다. '탐정:리턴즈'의 성동일과 이광수는 베스트 인기 스타상 수상자가 됐다.



전현무, 미혼모 가정 돕기 1억 기부

방송인 전현무(사진)가 미혼모 가정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며 사랑의 열매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 가입했다. 전현무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 전담식장에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사랑의 열매를 운영하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앞서 11월 생일을 맞아 서울 사랑의 열매에 미혼모 가정 지원금 1억원을 기부했다. 대중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고심하던 차에 평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부로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무는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평소 관심을 가졌던 미혼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던 중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FNC 연예인들 크리스마스송 참여

유재석(사진)과 정해인, 걸그룹 AOA 등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겨울 시즌송 '잇츠 크리스마스'에 참여했다. 13일 FNC에 따르면 17일 오후 공개하는 '잇츠 크리스마스'에 FT아일랜드를 비롯해 AO A, 엔플라잉, SF9, 체리블렛 등 가수 5개팀과 조재윤, 박광현, 성혁, 박두식, 정해인, 정유진, 광동원 등 배우 7명, 김용만, 유재석, 송은이, 정형돈, 노홍철, 문세윤, 최성민, 조우중, 문지애, 이세영 등 방송인 10명이 출동해 한 목소리로 노래했다.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포근한 멜로디와 소속 연예인들의 하모니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소속 연예인이 뜻을 모아 함께 부른 노래인 만큼 음원 수익금 전액을 학교가 필요한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한 건축 지원에 쓴다.